





서원 없는 불자는 표류하는 배와 같아  
서원 했거든 부단한 자기 점검·발심

다가 올 일을 바르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성인의 삶이야. 은사스님의 삶이나 내가 살아 온 것이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면 이렇게 지성적인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이지. 선공후사(先公後私)라고, 개인의 일보다 대중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야. 경전에 '안락행품'이 있듯이 생활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이해관계에 따른 감정의 흐름이라는 것이 흐러지면 안 되는 거야. 화두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자신의 실체를 잃어버리려 안 된다는 것이지.

서원을 가졌으면 오직 그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서원이라면, 그것을 철저한 화두가 되게 하라는 것을 월운 스님은 거듭 강조했다. 철저할 때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고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 잠깐의 실수로, 한 순간의 착각으로 큰일을 저지르거든. 자기절제가 흐트러진 것이지. 그렇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잘나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서원에 대한 집중력을 잘나라도 놓치지 말라는 것이야. 늘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산을 봐도 강을 봐도 '관세음보살' 할 수 있어. 자신이 지금 어딜 가든 그렇게 가고 있음을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신비한 것도 수행이 아니고, 어디 따로 있을 것이라고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 수행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 그런 차원에서 서원을 세우고 놓치지 말면 되는 거야. 너무 크게 생각하고 너무 복잡하게 여기니까 공부의 방향이 흐려지고 있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무렵이면, 새 해를 맞아 세웠



(위)월운 스님이 봉선사 다경실에서 번역원고를 검토하고 있다. (아래)월운 스님이 2010년 6월 봉선사에서 <인본육생경> 시역고·강명회를 주관하는 모습.

던 계획들이 '작성삼일'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집중력을 잃고 방황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도 보게 된다. 월운 스님은 그것이 잘 못 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문제는 빨리 잘 못되었음을 깨닫는 것이야. '아하, 이걸 아니구나. 이래서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다시 재발심을 해야 하는 거지.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도 역경관련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잘못된 경우가 수없이 많았지만, 결국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서 끝을 보게 됐거든. '미워도 내 남군'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단한 자기 점검과 발심, 새로운 출발이 없으면 서원은 물거품이 되는 거야."

살아 온 그 과정이 새로운 서원

월운 스님은 인터뷰 내내 살아 온 날들에 대한 회고와 자제 했다. 역경불사에 대한 남다른 서원을 이야기 하는 것도 짐짓 피했다. 동국역경원장직을 '황당'하게 그만 두어야 한 것에 대한 서운함은 역력했다. 불경서당도 지금은 중단되었고 능엄학림과 흥법강원 등도 옛 명성에 많이 부족한 것을 씁쓸해 하는 듯했다.

어느 법회든 요정이 오면 달려가 법문을 하고 법문

말미에는 반드시 "국민에게 세금 낼 의무가 있듯 불자에게는 역경 후원금 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경에 대한 한결같은 노심조사. 그래서 적지 않은 역경(逆境)도 견뎌야 했던 월운 스님의 시간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공덕의 빛으로 중생계를 비추고 있다.

-지금 스님께서 세우고 싶으신 서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일 해 온 것이 다 새로 세워야 할 서원이고, 오늘 아침 이야기 한 것들이 다 내 숙제들이지. 나도 이제 갈 때가 다가오는데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옛말에 '어영부영 남월 말일'이라고 했어.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그렇게 한 해가 오는 거야. 돌아보면 아직 죽는 게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죽는 일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져. 누가 몰랐어. '아직은 잘 있어'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스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글·사진=임연태(시인·본지는설위원) mian1@hanmail.net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위가 가벼워야 한다

연구실에 화분이 있다. 탐스럽게 핀 꽃송이가 보는 이의 마음을 맑게 한다. 옆에 옷을 걸다 보면 소매에 닿아 꽃이 상할까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 저 꽃은 부드럽기 때문에 위에 자리 잡는 것이다. 반면에 뿌리는 단단하므로 아래에 놓였다. 사회구조 역시 강한 사람이 뿌리를 말고 유연한 사람이 상부를 맡으면 이상적인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인과 화가가 사회의 상부를 맡아야 하며, 성자와 현자가 최상부를 맡아야 한다. 군인과 정치가와 사업가는 하부를 맡아야 한다. 하부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상부를 차지하는 바람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다.

세상은 마치 뿌리가 나무의 정상을 차지하고 꽃을 밑으로 밀어낸 형국이다. 인도의 사회구조를 보면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스트의 제일 계급이 승려계급인 브라만이 상부를 맡았다. 브라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계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내면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 공극을 깨달은 사람이 브라만이며, 브라만은 사회의 꽃이다. 그래서 상부를 맡았다. 힘 있는 제후나 왕은 브라만의 발아래 절을 했다. 왕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왕 일 뿐이다. 대부분의 속인은 야망을 쫓기 때문에 정신이 병들어 있다.

부처님은 한 나라를 찾아왔다. 이때 이 나라의 왕은 도성 밖으로 나가서 부처님을 영접하길 꺼려했다.

지혜로운 재상이 왕에게 조언을 했다.  
"가 보셔야 합니다."  
왕이 대답했다.

"격식이 맞지 않는 것 같소. 그는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요? 그냥 오라고 하시오. 왜 내가 도성 밖까지 나가 영접을 해야 하오. 나는 왕이고 그는 거지요."

그러자 재상은 바로 사직서를 썼다.  
"사직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속이 좁으시다니. 저는 더 이상 모실 수 없습니다. 전하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분은 왕국을 버린 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더 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가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제 사직서를 받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전하를 보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가서 영접을 했다.

왕이 부처님께 절을 하자 부처님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하는 마지못해 나왔지요. 마지못해 나오는 건 진정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존경은 강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존경이야말로 이해하든가, 못하든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를 보러 여기까지 오지 않

았습니까? 나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왕이 울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말을 깨달은 것이다.

시인 타고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오늘날 인도의 국부로 추앙받는 간디이고, 그는 아힘사(ahimsa)의 정신으로 인도인의 버림받아 되어 독립의 주역이 되었다. 간디의 영향을 받아 위대한 정치가 네루 수상이 배출되었다.

현대 사회구조는 너무 위가 무거워졌다. 가벼운 꽃이 정상에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현자와 시인이 정상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성인은 말했다. '정상에 서고 싶다면 부드럽고 약한 사람이 되라. 유하고 부드럽려라. 거대한 나무처럼 강하지 말고 작은 풀처럼 부드럽려라.'

설날이 되면 평소 못 뵈던 어른들에게 세배를 다닌다. 참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이 미풍양속이 상도(常道)를 벗어나는

현대 사회는 위가 너무 무거워  
현명한 사람 사회 위에 있어야  
정상 서고 싶다면 강하지 말고  
작은 풀처럼 유하고 부드럽려라

일도 있다. 앞에 언급한 왕과 부처님과 관계처럼 마음에 내키지 않는 세배도 있는 듯 하고, 세배하면 세뱃돈을 연상시키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두 경우 모두 본래 취지를 희석시키는 행위에 따른 것이다.

설날을 맞아 변화라는 의미를 음미해 보자. 변화란 오래된 것이 소멸하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이다. 변화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거듭나기 위한 통과의례쯤으로 여긴다면 쉬수용이 될 것이다. 그요한 휴학에서 사뭇같은 양이 분출되는 모습을 보면 변화의 극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룬 부처님은 내면세계에 영접한 진동을 느꼈다. 그 진동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위대한 행위로 나타난다. 인류애로 각색되어 중생제도의 길을 걷게 된다. 많은 수행자들은 부처님과 같은 진동을 느끼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술한 해를 맞고 달을 맞는다. 나의 내면의 세계가 성장이 되어야 만이 부처님과 화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음악에서 화음은 8음계의 배열에 달려있다. 수행자에게 화음은 음악의 음계 보다 낮은 수인 삼독심의 통제에 있기 때문이다.

특허등록 (30-0607637)  
法性圖 所持者 成就一切萬法 消滅一切諸障礙  
법성도는 心지요체 정법입니다. 혹方便으로 사용하고있는 符籍보다는 천만배 이상 靈驗과 隨乘한 공덕이 있습니다. 회화나무 꽃으로 수제품 딱종이에 염색한 槐黃紙에 鏡面朱砂로만 특수 제작하여 불자들에게 護身(휴대)용으로 엽가 普及합니다.  
호신용 액자용 부처님 점안 복장용 윤달 예수제용 등 주문제작합니다 槐黃紙 원지 판매합니다.  
법성원 : 051)532-1113 / 010-8258-9963 홈페이지 : www.bswon.com  
은행계좌.837026-56-062884 농협 이상경 / 전국 유명불교용품점에서도 구입가능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가법고 설치 용이  
원터치 고리용  
(인등) 소원성취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곁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등 전선 시공